

## 구 데미야 철도 시설

오타루의 데미야 철도 시설은 19 세기 말에 홋카이도 최초의 기관차를 격납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현재는 오타루시 종합박물관의 일부가 되었으며, 축척 모형, 사진, 철도 차량과 증기 기관차를 통해 홋카이도 초기 철도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19 세기 말에 호로나이(현재의 미카사시)의 탄광에서 삿포로를 거쳐 오타루까지 이어지는 철도 건설의 지휘를 맡은 사람은 미국인 철도 기술자 조지프 유리 크로포드(*Joseph Ury Crawford*, 1842 년~1924 년)였습니다. 호로나이 철도는 우선 데미야~삿포로 구간이 1880 년에 개통되었으며, 1882 년에는 전체 노선이 완공되었습니다.

시설 내의 일부 건물은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관차고 3 호는 1885 년에 완공된 현존하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기관차고이며 3 대의 기관차를 격납할 수 있습니다. 5 대의 기관차를 격납할 수 있는 기관차고 1 호는 1908 년에 완공되었습니다. 1919 년에 만들어진 강철 전차대는 박물관 부지 내를 하루에 몇 차례 주행하는 홋카이도에서 가장 오래된 현역 증기 기관차 ‘아이언 호스호(*Porter 4514*)’를 조작하기 위해 현재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증기 기관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1916 년경에 만들어진 저수조와 도료, 석유 등 가연물을 보관하기 위해 1898 년경에 지어진 석조 위험품고가 있습니다. 1911 년에 석탄 적재 전용으로 만들어진 데미야 고가 부두는 이미 철거되었지만, 부두까지 이어지는 선로의 노반을 지탱하고 있던 옹벽 일부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